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 의 록

일 시	2024. 3. 8.(금) 16:00	장 소	의회 1층 다목적회의실
참 석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5명 (총 7명 중 5명 참석, 2명 불참)		
안 건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 계획 심의		
근거 법령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회의 결과	원 안 가 결		

- 간 사: 안녕하세요? 단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정팀장 이재길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이후, 금일 안건인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 계획’을 상정하여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지난 2024년 충북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위원회에는 군의원으로서 김혜숙 부의장님이 포함되어 있지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금번 안건에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대상이므로 김혜숙 부의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권택조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권택조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이희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희준 부위원장님 주재로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단양군의회가 공무수행으로 인한 해외출장으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이 모이셨으니까 해외출장에 대해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고, 심도있게 토의해서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 선언하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의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 계획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안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금번 안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공무국외연수의 출장목적은 선진 노인복지 정책과 도시기반 우수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정책 및 의정 연구자료로 활용하는데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양읍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선진 사례를 체험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아이템을 발굴하고 추진 인이 사업의 타당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 국외연수를 기획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진국의 노인 정책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의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선진사례를 비교 시찰함으로써 우리군의 관광사업과 도시기반 시설의 발전적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출장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8일까지 6박 8일이 되겠습니다. 방문국은 호주, 뉴질랜드 2개국입니다. 참석인원은 총 10명으로, 군의회 의원 7명 전원과 국외 의정연수 지원을 위해 사무과 직원 3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연수 대상국의 공식기관 섭외 및 방문 등을 위해서 일반 여행사가 아닌 의정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함으로써 국외연수의 실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예산규모는 총 4,648만원 정도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의 경우, 규정상 산출 예산은 개인별로 약 490만원 정도이나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인당 480만원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과 수행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약 461만원 정도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달러 환율 및 항공운임 변동에 따라 소요예산을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일차는 인천공항에서 호주 시드니로 출국합니다. 2일차는 호주 시드니 N.S.W.주립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시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파악하고 주립도서관의 운영 및 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도 사할 계획입니다. 3일차에는 바랑가루 도시재생 프로젝트 운용국을 방문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지구 구축 및 중장기 계획과 자료 수집하고 바랑가루 도시재생지구의 주요 특징 및 개발 성과 등 파악해서 지금 단양읍에서 도시재생 사업들이 일부는 잠시 중단되어 있지만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과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4일차에는 스트라스필드시 의회를 방문하여 시의회 및 관광관리 부서 관계자와의 현지 간담회를 가져, 의회 구성과 의정 운영 시스템과 정책 현안 처리 방안은 물론, 관광 활성화 정책 및 관광시설 관리 현황 등의 자료 수집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5일차는 오클랜드 도심공원 및 관광자원 시찰하고 농장, 온천 등 지역 자원의 관광화 성공 사례를 견학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군에 접목가능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6일차는 로토루아 도시기반시설 시찰하여 공원, 산책로 등 주민편의시설의 이용 활성화 사례를 시찰하고, 지역 보존과 개발의 합리적 운용 정책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7일차에는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 케어라는 선진 노인복지 정책 시스템 및 민관 협력체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단양군 접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일차에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입니다. 의장님은 의정 연수를 총괄하고 각 의원님들은 선진 의회제도 및 우수 사례 수집, 우리군에 접목가능한 정책을 중점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행직원 3명은 촬영이라든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개인별 업무를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국외여비 지급표 별표 4-4호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일반 의원님들과 수행직원은 국외여비 지급표 별표 4-5의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식비와 숙박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대효과입니다. 금번 공무국외연수를 통해 국외 지역의 우수사례 자료수집과 비교 분석 등으로 우리군에 접목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원 상호간 전문지식 함양과 의정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배양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도움일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우: 의원님들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사업예산에 잡혀있나요?
- 간 사: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상우: 해마다 있나요?
- 간 사: 네. 해마다 있습니다. 예산이 풀 성격이라 업무추진비를 늘리면 연수비를 깎아야 되고 연수비를 늘리면 업무추진비를 깎게끔, 의회비 예산이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이상우: 전 세계 국가가 240개 정도 되는데, 왜 출장을 호주와 뉴질랜드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 간 사: 처음에는 베트남으로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꺼우저이 구에 가서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쪽과 저희가 우호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우호 협력 도시라서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섭외가 안됐습니다. 방문하겠다는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적게 드는 거는, 동남아 이쪽이 예산이 적게 들지만 사실 배울 게 많이 없더라구요. 지난 번엔 유럽을 갔다 왔고, 그 이전에는 일본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륙을 달리해서, 올해 증평 같은 경우, 노인복지 쪽으로 보고 왔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우: 의원님들께서 싱가포르를 갔다 온 적이 있나요?
- 간 사: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대 의원님들은 다녀오신 적이 없습니다.
- 이상우: 싱가포르를 동남아 쪽에서도 잘 사는 나라, 도시정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니까. 다른 나라는 동남아는 관광은 모르겠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나 이런 건 볼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면 다녀오시는 거죠.
- 부위원장: 자부담이 있나요?
- 간 사: 항공권이나 이런 건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 자부담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 내의 범위에서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연수 전문기관을 섭외를 해 봐야겠지만, 산출된 예산은 이런 거고 의정연수 연수기관에 정확한 경비나 이런 것들은 컨택을 해 봐야 합니다.
- 이상우: 일정 보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주립도서관이나 갔다 오고. 호주까지 가서 오페라 하우스를 진짜 안갈 건지, 하버브릿지를 안갈 건지. 다만 표기를 안했을 뿐인지,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시찰하면서 하루 한, 두 시간, 삼사일이면 끝나는 건데, 여기 뉴질랜드, 호주에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안갈 건지.
- 간 사: 여기에는 이름을 안넣어놨는데,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입니다. 단양은 대한민국의 1번 내륙 관광도시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봐야지 알거든요. 말씀하신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기반시설로 합쳐서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역사를 대동하는 방문 기관이 3개 정도 예상됩니다. 이견 업체와 더 조율을 해 봐야하는 문제이긴 한데. 일정을 알아봤을 때, 도시기반 프로젝트 운용국이라든지, 시의회와 관광 부서, 또 하나는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 케어 등 공식기관을 방문해서 전문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관의 관계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 이상우: 너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당당하게 갔다 와도 될 건데, 사실 세계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의 건물이잖아요. 그걸 보고 느끼고 단순히 관광을 갔다 왔다는 시각으로 보면 나쁜 거지만 아, 이런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군의 미래 창작을 꿈꿀 수 있는데, 너무 그렇게 빼고 그러면, 거꾸로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오는구나, 어차피 간건데.
- 이종범: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대부분 이렇게 가요. 동남아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이번엔 잘됐네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옛날부터 관광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지방 자치도 발전이 잘됐어요. 이런 데 가서는 진짜 선진 문물을 잘 배울 거예요. 이번에 해외연수 잡아놓은 걸 보니까 일반 관광회사가 아니어서 그런지 짜임새 있게 잘해냈네요. 일정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여기가 전문회사입니까?
- 간 사: 저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회사가 이런 의정연수 전문 기관입니다.
- 이종범: 그런 데가 좋은 게, 다른 데는 일정 짜놓고 가서는 실질적으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의회도 많아요.

그런 해외연수가 돼서는 안되는데. 지금 일정 보니까 잘 하셨네요. 갔다 오셔서 예산이 큰데, 그 이상의 단양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오신다면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하시겠다는 목적에 부합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가신 길에 관광자원도 함께 보고 우리군에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장성숙: 저는 주립도서관과 기반시설이 일정에 들어가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지금 우리군에 가족센터와 도서관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같이 접목에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배워오셔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종범: 통역은 여기서 같이 가나요?
- 간 사: 아니요, 현지 통역사가 나오고, 계속 같이 다니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관마다 전문 통역사가 나옵니다. 그쪽에 관한 전문가를 안 붙이면 영어를 할 줄 알아도 해석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통역을 전문으로 할 줄 아는 통역사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 이종범: 의원님들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정 중에 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체 일곱 분 중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이 각자의 목적을 배분해서, 집중적이고 심도있게 관찰하셔서 보고서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 장성숙: 보고서는 의원님들이 다 따로 내시나요?
- 간 사: 네. 맞습니다. 개인별로 다 내셔서 그걸 하나로 취합합니다.

- 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가시면 이걸 꼭 단양군에 접목을 시켜봐야겠다는 하는 걸 연구하셔서, 호주에 갔다 왔는데 벤치마킹을 해서 단양에 한번 해보겠다는 걸, 실현이 안되더라도, 끈기있게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범: 의원님들마다 주제가 있어야 돼요. 관광 인프라, 도시재생, 노인복지 등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좀더 좋아하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런 주제를 배분을 해서 하면 더 전문적이고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간 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별로 복지에 대해 좀더 관심있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환경 쪽에 많이 아시는 의원님, 또 교육 쪽 등, 의원님들의 성향이나 관심도에 맞춰서 중점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가족센터와 도서관 등의 시설과의 접목 방안, 그리고 싱가포르도 둘러보면 좋다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다들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단양군의회에서 갔다 오셔서 단양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우: 우리 단양군에도 도시재생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거든요. 도시재생국을 다녀오신다니까, 사실 호주가 기반시설이 참 잘 되어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방문을 하시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우리군에도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하면 시골에 빈집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내가 포커스를 가지고 가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우리군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많이 공부하셔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다른 분들 더 의견 있으십니까?
- 장성숙: 가시면은 출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 이종범: 호주가 출산에 대해서 선진국은 아닌데. 출산에 대해서 배울 게 많지 않을 거예요.
- 간 사: 출산율은 지금 다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확실히 가서 얘기를 하면서 듣는 것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 것들도 말씀드려서.
- 이종범: 거기는 이민자들의 나라예요.
- 이상우: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는 적어요.
- 부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셨고, 의견이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년 단양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추진 계획 심의’ 건은 원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에 다녀오신 ‘2024년 충북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거는 의장님만 다녀오셨나요?
- 간 사: 의장님이랑 수행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024년 충북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보고입니다. 간단히 개요만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1월5일부터 1월10일까지 4박6일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일원을 다녀왔던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룡 의장님과 조민기 주무관이,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하여 충북 내의 시군의회의장님들과 수행직원들이 다녀온 사항입니다. 자세한 연수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녀오셔서 의장님께서 필요한 내용들을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종범: 이 자료 가져가도 됩니까?
- 간 사: 네. 물론입니다. 이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주변에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부위원장: 이상으로 회의를 종결하면서 위원님들은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